

조선후기 서울의 生業과 경제활동

고 동 환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1. 머 리 말
2. 인구증가와 생업의 다양화
3. 상인의 경제 활동과 유흥업
4. 상업적 농업과 민영수공업
5. 경강변 각종 영업의 발달
6. 맺 음 말

1. 머 리 말

조선후기 서울은 인구증가,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도성의부로 도시공간의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서울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국왕과 관료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는 도시가 아니라 상업도시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 17세기 후반이후 서울이 겪는 이러한 변화는 도시구조와 주민구성, 도시문화, 이념적 지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가 갖는 한국사상에서의 의미는 대체로 중세적 질서의 해체와 근대적 사회단체를 예비하는 징후로 이해되고 있다.¹⁾

1) 이태진, 『18-19세기 서울의 근대적 도시발달양상』 (『서울학연구』 4.

이처럼 중세적 도시가 근대적 성격의 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울 주민의 구성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중세적 도시에서는 국가나 왕실 사무에 종사하는 인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조선후기 서울에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주된 인구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활동인구의 다양한 삶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현재 서울주민들의 생활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본고에서는 이 시기 도시변화의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고 판단되는 상업관련인구들의 구체적인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서울주민의 생업을 살펴보고자 했다. 조선후기 상인들의 구체적인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모습을 규명함으로써 조선후기 서울의 성격변화가 구체적인 사회계층의 생활현장에서도 확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人口증가와 生業의 다양화

17세기 후반이후 대동법 실시와 금속화폐의 전국적 유통은 노동력의 상품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농촌에서 유리된 농민들이 도시에 정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서울 인구가 급증하였다. 한성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1648년(인조 26), 1657년의 서울 인구수는 각각 95,569인, 80,572인이었는데 비해, 1669년(현종10)의 인구는 194,030인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인구 급증은 그 전에 비해 인구과약을 철

1995)

拙稿, 『17·18세기 서울 도시구조의 변화』(『역사와도시-제40회 전국 역사학대회발표요지』, 1997)

저히 시행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외방 유민들의 서울집주로 인한 실제 인구의 증가를 반영한 측면도 많았다. 이는 1660년대를 전후하여 麻浦米廩, 西江米廩, 門外米廩, 外魚物廩 등이 새로 창설되는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즉 대중들의 일용소비품인 미곡과 어물을 판매하는 시전의 증가는 소비인구의 증가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계상의 서울 인구는 1669년 이후 19세기말까지 戶數는 2만호에서 4만호 수준으로 漸增하였지만, 口數는 20만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구도 호수의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했다고 이해된다. 공식통계상으로 18세기의 서울호수는 4만호로 기록되었지만, 박지원이 쓴 한문소설이나 이덕무가 18세기 후반 서울의 번영을 노래한 漢詩에서는 8만호로 묘사되고 있으며,²⁾ 한성부에서 파악한 호구 중에 누락된 호수는 1만호에 가깝다는 기록도 있기 때문이다.³⁾ 또한 19세기 초 정약용은 1821년 가을에 전염병의 유행으로 서울城中 五部에서 죽은 자가 13만명이었다고 기록하였는데,⁴⁾ 인구통계는 1820년에는 208,875명, 1821년에는 203,305명, 1822년에는 203,395명이었다. 정약용의 기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서울인구의 65%에 달하는 인구가 죽은 것이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울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인명손실에도 불구하고 공식통계상에는 1820년과 1821년 사이에 5,570명의 감소가 기록되었을 뿐이다. 정약용의 표현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고려에 넣는다고 해도

2) 이우성·임형택 편, 『李朝漢文短篇集 하』 (일조각: 1978) 廣文子傳, 李德懋, 城市全圖詩

3) 『비변사등록』 125책, 영조 29년 정월 16일

4) 『牧民心書』 愛民 六條 寬疾

사망자 13만명이라는 수치는 당시 호적에서 누락된 인구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19세기 말 유길준은 조세금납화의 실시를 주장하면서, 서울 인구를 成人 40만명, 미성년자 10만명, 유아 5만명등 총 5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⁵⁾ 유길준의 파악은 서울주민들의 식량사정을 추계한 것으로 정부의 賦役중심의 인구통계보다는 실제 거주인구 중심으로 파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18세기 서울 실제 거주인구는 5만호 이상, 인구는 30만명 이상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⁶⁾

인구증가로 말미암아 서울의 인구구성도 크게 달라졌다. 1638년(인조 16) 자료에서는 서울주민을 宗室, 附馬, 士大夫, 醫·譯·胥徒·市民등으로 파악하고 있다.⁷⁾ 서울 주민 대부분을 왕실과 관련된 인구거나 관료, 또는 중인층과 상인층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초반 자료에서는 職任者, 胥吏, 貢人, 市廛商人, 軍兵, 영세소상인, 手工業者, 閑雜之類로 서울 주민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농사짓지 않고, 織布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閑雜之類들은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⁸⁾ 이들 한잡지류는 대부분 坐板行商하여 생계를 유지했던 자들이었다.⁹⁾

이처럼 인구증가는 곧 서울사람들의 생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한문소설의 기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5) 『兪吉濬全書』 4, 稅制議 (一潮閣, 1971), 185-187면

6) 拙稿, 『朝鮮後期 서울의 商業都市로의 成長』(『東洋都市史속의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7) 『비변사등록』 5책 인조 16년 8월 13일

8) 『비변사등록』 213책, 순조 25년 11월 21일

9) 『승정원일기』 1970책, 순조 9년 8월 29일

서울은 온갖 匠人들과 장사치들이 모여드는 곳인 만큼 대체로 물건을 살수 있는 수많은 전방이 줄줄이 벌여있고 바둑처럼 깔려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품팔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도 있으며, 어깨와 등을 파는 자도 있거니와 뒷간을 치는 자, 칼을 갈아 소를 잡는 자, 자신의 얼굴을 예쁘게 꾸며서 몸을 파는 자도 없지 않으니 천하의 사고 팔음이 극도에 이르렀다 하겠다.¹⁰⁾

이처럼 조선후기 한문소설에 비쳐진 서울은 노동력만이 아닌 性까지도 상품화될 정도로 상업화된 도시였던 것이다.

서울이 상업도시로 성장하면서, 서울은 화폐경제가 모든 경제활동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南公徹은 이러한 사정을 “서울은 돈으로 生業을 삼으며, 八道는 곡식으로 生業을 삼는다”라고 표현하였다.¹¹⁾ 또한 1842년(헌종 8) 가짜 암행어사 행세를 하다가 붙잡혀 포도청에 끌려 온 한 죄수도 “서울은 지방과 달라서 돈이 있으면 안되는 일이 없는 곳”이라고 서울의 상업도시로서의 분위기를 실감있게 표현하고 있었다.¹²⁾ 이와 같이 서울의 상품화폐경제가 극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서울주민의 생업도 그 전에 비해 훨씬 다양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생업을 가진 인구중에서 상업인구의 비중은 어느 정도였을까. 우선 시전상인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시전상인의 수는 서울상업의 번성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평시서 시안에 등록된 시전의 수는 17세기 전반에 30여개에서 18세기 말에는 120여개로 증가하였으며,¹³⁾ 동일한

10) 정병욱 편, 『한국고전문학전집 7』 柳光億傳 (서영출판사, 1978)

11) 南公徹, 『金陵集』 권 10, 擬上宰相書

竊嘗論之 生民之業 京師以錢 八路以穀

12) 右捕廳臚錄』 권 2, 壬寅(1842) 3월 29일 罪人 崔東旭 年三十三 供草 京中異於鄉中 有錢則無事不成

13) 『弘齋全書』 권164 日得錄 市摠冊

시전내에서도 상인수는 계속 늘었다. 예컨대 어물전 상인은 17세기말 243명이었지만, 18세기 초에는 300여명으로 증가했으며,¹⁴⁾ 쇠고기를 판매하던 성균관 典僕들도 1724년(영조 즉위) 5천명¹⁵⁾에서 1736년(영조 12)에는 거의 1만명에 달하고 있었다.¹⁶⁾ 돼지고기를 판매했던 猪肉廛도 초기에는 판매처가 6-7곳에 불과했지만, 18세기 전반에는 7-80여곳으로 늘어났다.¹⁷⁾

시전상인외에도 시전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했던 영세소상인층도 상당수에 달했다. 어물판매상인은 어물전 상인외에도 梨峴과 七牌를 무대로 중간도매업을 하는 中都兒들이 있었으며, 또 중도아나 어물전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呼唱行賣之類’들인 어물 행상도 있었다.¹⁸⁾ 이처럼 시전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행상층은 어물류나 미곡류등 일용소비품을 판매하는 시전에는 대부분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京江邊 수만명의 인구도 대부분 상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¹⁹⁾

1781년(정조 5) 掌令 具修溫은 ‘都下民중에서各司吏隸를 제외하면, 장사로 살아가는 자가 10중 8, 9’라고 말하고 있다.²⁰⁾ 여기서 보듯이 18세기 서울인구의 대부분은 상업인구

14) 拙稿, 『18세기 서울의 魚物流通構造』(『韓國史論』 28, 1992)

15) 『비변사등록』 76책, 영조 즉위년 9월 28일

16) 『비변사등록』 135책, 영조 34년 8월 28일

17) 『승정원일기』 472책 숙종 38년 9월 28일

18) 『各廛記事』 地, 乾隆 46년(1781)辛丑 4월 일

19) 拙稿, 『18, 19세기 서울京江地域의 商業發達』(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1993)

20) 『正祖實錄』 권 12, 정조 5년 11월 己亥

였던 셈이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은 市廛商人과 貢人을 ‘都民之根本’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상업인구중 가장 견실한 경제기반을 지녔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시전상인과 더불어 서울 상업세력을 대표했던 공인은 대동법 실시 이후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공납청부업자로서 출현하였다. 공인은 공가의 지급방식에 따라 元貢貢人·別貢貢人·貢物主人·貢人契 등으로 구분되었다. 각 관청에서 1년동안 마련해야할 공물총량을 元貢이라 했는데, 이처럼 미리 계상된 원공가를 선혜청에서 지불하는 공인을 원공공인이라 했고, 별무공인은 각 관청에서 원공이외에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물품조달을 맡은 공인으로서, 이들에게는 호조에서 별무가가 지급되었다. 한편 대동법 실시이후 각 관청의 원역과 차인·경주인·영주인 등을 내세워 공물을 조달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담당하는 자를 공물주인이라 하였다. 그리고 대동법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일반민인들의 노동력이나 특산물의 진배형태로 남아있던 부담을 정부나 지방관청에서 돈을 내어 이를 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공인계가 발생하였다. 공인계는 17세기 후반 三南方物紙契貢人을 시초로 하여, 18세기 전반에는 馬契·運負契·氷契 등 노력청부를 담당하는 공인계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공인들은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물품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경제활동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이들은 서울을 무대로 활동하는 자도 없지 않으나, 주로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여 정부 관청에 납품하였다. 이들은 지방에서 공인이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시가보다 훨씬 싼값에 물건을 강매하여 지방의 생산자나 상인들을 수탈하는 특권상인이기도 했다.

이상과 같은 상업인구 외에도 서울에는 대형토목공사, 荷役運輸業과 藏氷業, 그리고 雇立化된 각종 요역등에서 품을 팔아 살아가는 자들도 많았다. 다음의 자료에서 보이는 흥부아내와 흥부의 품팔이노동은 당시 도시빈민들의 생업의 실상을 잘 알려주고 있다.

흥부아내는 이말에 순종하여 서로 나가서 품을 팔기로 하더라. 춘방 아찌기, 술집에서 술거르기, 초상난 집의 祭服짓기, 대사치르는 집의 그릇닫기, 굶하는 집의 떡만들기, 시궁발치의 오줌치기, 解氷때면 나물캐기, 봄보리를 갈아 보리농기, 이렇듯 온갖 일에 품을 팔고, 흥부는 이월동풍에 가래질하기, 삼사월에 부침질하기, 일등전답의 水畚갈기, 이집 저집 돌아가며 이엉엮기, 굶은 날에는 명석맺기, 시장 갖에 나무베기, 곡식장수의 驛人서기, 각읍 주인들의 샅일가기, 술밥먹고 말짐신기, 닳푼밭고 말편자박기, 두푼 받고 똥채치기, 한푼 받고 비매기, 식전이면 마당쓸기, 이웃집의 물씻기, 전주감영의 돈짐지기, 대구감영의 태전지기, 이렇듯 온갖 일을 해도 살 길이 막연한지라²¹⁾

한편 경강의 하역운수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雇價로 1 馱당 2전씩을 받아, 아침, 저녁을 마포 시장에서 사서 먹는 초기 부두노동자의 성격을 갖는 계층이었다.²²⁾ 이들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사흘 먹을 것을 잃어 버리는’ 날품팔이 노동자였다.²³⁾ 그러나 노동자들 중에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각종 토목공사에 노동자로 고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서울에는 고립화된 각종 균역에 종사하는 균병들도 상

21) 정병욱 편, 『한국고전문학전집 7』 興夫傳 (서영출판사, 1978)

22) 『正祖丙午所懷臚錄』 (서울대 고전간행회 刊, 158쪽) 禁軍 辛大昌所懷 江民資生之道 專靠於馬背 而一馱之雇價 不過二錢 朝夕買食於麻浦之市

23) 윗 책, 禁軍 崔德禹所懷 153면

江郊殘民 赴役十里 將失一日之業 一日失業 必失三日之食也

당수였다. 이들은 균역의 대가로 균포를 받았지만, 이것만으로 생계를 꾸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영세소상인이나 각종 토목공사의 역군으로 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이들 균병들은 영세소상인이나 품팔이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도시 하층민이었다.

이들보다 하층에는 거지들이 존재하였다. 이들은 효경교, 광통교 밑에서 주로 거주했는데, 정조대 이후에는 겨울철이 되면, 이들이 깔고 덮고 잘 가마니와 옷가지를 지급하는 것을 관례로 삼았다. 이들 거지들도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이중 두목인 경우는 서울 안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예컨대 한문단편 『丐帥』에서 보여지는 거지두목은 당시 서울안의 권세가조차도 초빙하기 어려운 용호영 군악대를 삼청동에 초치하여 거지들끼리 잔치를 벌일 정도였다.²⁴⁾

이와 같이 生業이 다양해지면서 서울에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인간군상들이 출현하고 있었다. 18세기 중엽의 한문단편소설이나 漢詩에는 계장수, 닭장수, 말장수, 居間, 염색업자, 冶匠, 갓바치, 약국쟁이, 연희패, 서리, 별감, 도둑, 포교, 경강상인이나 도고상인, 도시의 수공업자, 그리고 경강일대에서 미곡, 柴炭, 잡화를 하역, 운반하는 도시 임노동자 등을 주인공으로 그리고 있다. 그동안 문학작품에서는 대부분 산수와 자연을 소재로 삼아왔던데 비해 18세기 이후에는 도시발달이 낳은 여러 종류의 인간군상들을 형상화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⁵⁾

24) 이우성·임형택 편, 『이조한문단편집 하』 丐帥

25) 강명관, 『조선후기 서울과 漢詩의 변화』(『문학작품에 나타난 서울의 형상』, 1994)

3. 商人의 경제활동과 유흥업

1) 종로의 시전상인과 餘利軍

18세기 후반 서울의 상가는 종로의 시전상가 외에 17세기 후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칠패시장과 18세기 중엽에 형성된 梨峴시장을 합하여 통칭 三大市로 표현되었다. 서울에는 三大市외에도 가로상에 다양한 雜市와 빨감시장이 있었고, 도심 곳곳에 독자적인 점포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점포상업도 번성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의 상업은 시전중심에서 점차 난전시장인 이현과 칠패시장, 그리고 점포상업으로 다양화되어 갔다.

주지하듯이 시전상인들은 평시서 市案에 등록되어 특정상품에 대한 독점적 유통권인 금난전권을 보유한 상인이었다. 이들에게 금난전권을 허용한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일정한 부담, 즉 국역을 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든 시전이 국역을 부담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전은 有分各廬과 無分各廬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므로 평시서 시안에 등록된 시전이라고 해도 자본력이나 영향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예컨대 국역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육의전은 시전상인들 중에서 자본력이나 영향력이 가장 컸던 반면, 무분각전인 白糖廬은 특정한 점포없이 아동들이 옛판을 지고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전은 무분각전이라고 해도 종로일대에 자신들만의 廬房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종로의 시전상가는 궁궐이나 관아, 또는 양반 사대부가에서 필요한 사치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장으로서, 주로 대

낮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종로 중심가의 시전건물은 2층 목조기와집이었고, 26) 상층은 창고, 하층은 점포로 사용되었다. 또한 개별 시전은 여러 행랑이 연이어져 있는 건물에서 영업을 했는데, 이를 房이라고 불렀다. 육의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立廳의 경우는 총 1房에서 7房까지 있었고, 각 房은 10間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間마다 시전상인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는 구조였다. 중국산 비단을 주로 판매했던 立廳에는 70명정도가 직접 전방에 앉아 장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立廳 외에 육의전에 포함된 시전인 경우는 5房 내지 6房정도의 건물 규모였다고 추정되고 있다.

한편 개별 시전들은 저마다 都中이란 독자적 조합을 구성하여 정부에 대한 국역부담을 총괄하고, 상품판매권을 독점하며, 都員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각 시전의 도원, 즉 시전상인은 아무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엄격한 조건과 심사에 의해 그 자격이 주어졌다. 시전상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은 기존 도원의 아들이나 사위들이었다. 이들 시전상인의 자제들은 상행위를 익히기 위해 15세가 되면 시전에 나와 일을 함으로써 父業을 잇는 준비를 했다. 이를 일러 '兒童出市'라고 불렀다. 27) 전연 연고없는 타인들은 도중 총회에 회부하여 엄격한 전형을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도중에의 가입은 혈연관계가 기본이었고, 세습적인 가입자격을 부여받는 범위는 증손대까지 한정되었다. 시전의 동업길드적인 강인한 단결력은 이와 같은 혈연 중심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때 남계혈통 외에도 여계혈통

26) 이우성·임형택 편, 『李朝漢文短篇集 하』 馬駟傳 (일조각, 1978)

27) 『立廳完議疑義解釋』 兒童出市 (『조선봉건말기사회경제사자료집』), 309쪽

도 증시되고 있음이 특징이다. 또한 廳房 뒤에는 都家를 설치하여 시전업무에 대한 회의 및 공사처리의 사무소로 사용했다. 이곳에는 각 시전 都中의 임원들이 업무를 집행하였다.²⁸⁾

그러면 서울 시전에서 어떻게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종로의 시전전방 문 바로 앞에는 退廳이라고 하는 작은 방이 붙어있었는데, 시전상인은 이 퇴청에 방석을 깔고 앉아 손님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종로에 물건을 사러와도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파는 곳을 금방 알 수 없어 종로를 배회하게 마련이다. 이 때 이 손님에게 큰 소리로 무슨 물건을 사러왔는가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시전상인이 아니라 아직 점포를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로써, 손님을 시전점포에 이끌고 간 뒤에는 중매인이 되어 흥정을 붙여 거래가 성사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을 여리꾼이라고 불렀다. 여리꾼은 시전상인이 작정한 값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주고, 그 차액을 먹었는데, 이 차액을 餘利라고 했다. 예컨대 원래 비단의 원가가 17냥이고, 시전주인은 여기에 3냥의 이문을 붙여 20냥에 팔 생각이었다고 하자. 그런데 여리꾼이 중간에 흥정을 붙여 21냥에 비단을 판매했다면, 주인에게 1냥은 더 남은 이익, 즉 여리였고, 이는 상인이 아닌 흥정을 붙인 여리꾼이 먹는 이익이었다.

여리꾼은 특정가게에 전속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리꾼이 자기 몫을 챙기려면 주인이 작정한 가격을 먼저 알아내서 그보다 비싼 값에 팔아야 했다. 그러므로 손님이 알아듣지 못하

28) 이상 시전의 구조와 조직에 대해서는 劉元東, 『韓國近代經濟史研究』(一志社, 1977), 149-151쪽 참조

도록 암호를 사용해 가격을 알아냈는데, 이 암호를 변어라고 했다. 변어는 주로 破字의 원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1은 天不大, 2는 仁不人, 3(王不柱), 4(罪不菲), 5(吾不口), 6(袞不衣), 7(皂不白), 8(兌不允), 9(旭不日)과 같이 사용했다. 이러한 변어는 각 시전마다 그 용례가 달랐는데, 立廳에서는 市, 些, 汝, 罌, 伍, 交, 皂, 兌, 旭자의 파자로 이 숫자를 표현하였다. 예컨대 些에서 脫此하면 2를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꾼들은 脫巾=1, 脫女=3, 脫正=4와 같은 방식의 암호를 사용하여 손님 몰래 가격을 알아내어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흥정을 붙였던 것이다.²⁹⁾

2) 七牌·梨峴市場과 위조품범람

종로의 시전상가와 달리 이현과 칠패시장은 주로 자유상인인 사상들이 활동한 시장이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종로시전과 달리 새벽녘에 거래가 활발하였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였다.³⁰⁾

서소문과 남대문사이에서 번성한 칠패시장은 서울의 관문인 京江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서해에서 들어오는 각종 어물과 미곡등이 판매되는 시장이었다. 특히 경강여객주인이 시전상인 몰래 외방에서 신고 온 상품을 빼돌려 칠패의 中都兒층에게 넘겨주면, 中都兒들이 일반 시민에게 판매하는 시장이었다. 동대문 안쪽 현재 광장시장 근처에 존재했던 梨峴(배오개)시장은 동북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상품이 일차로 모이는 시장

29) 『立廳完議疑義解釋』, 京城六矣廳行用邊語 (『조선봉건말기사회경제사자료집』), 311쪽

30) 『京都雜誌』市舖

이었다. 그러므로 함경도지역에서 운반된 북어가 팔렸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서울 근교에 상업적 농업으로 재배된 채소들이 주로 팔렸다. 이현, 칠패시장은 '東部菜 七牌魚'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어물과 채소거래에 있어서는 규모면에서 종로의 시전을 능가하고 있었다.³¹⁾

한편 이현, 칠패시장은 난전상인들에 의해 개척된 시장이었으므로, 상거래질서 또한 종로시전에 비해 어지러웠다. 다음과 같은 기록은 이러한 모습을 잘 알려준다.

서울의 서문에 큰 시장이 있다. 이곳은 가짜 물건을 파는 자들의 소굴이었다. 가짜로 말하면 白銅을 가리켜 銀이라 주장하고, 염소뿔을 두고 玳瑁라고 우기며, 개가죽을 가지고 貂皮로 꾸민다. (중략) 소매 치기도 그 사이에 끼어 있다. 남의 자루나 전대에 무엇이 든 것 같으면 예리한 칼로 찢어 빼간다. 소매치기를 당한 줄 알고 쫓아가면 요리조리 식혜파는 골목으로 달아난다. 꼬불꼬불 좁은 골목이다. 거의 따라가 잡을라치면 대광주리를 짚어진 놈이 불쑥 광주리사려 하고 뛰어어나와 길을 막아버려 더 쫓지를 못하고 만다. 이 때문에 시장에 들어서는 사람은 돈을 전장에 진 지키듯 하고, 물건을 시집가는 여자 품조심하듯 하지만 곧잘 속임수에 걸려드는 것이다.³²⁾

여기에서 서대문의 큰 시장은 바로 칠패시장을 일컫는 것이다. 칠패시장은 가짜 물건을 파는 소굴로서, 조직적 소매치기 범죄와 사기와 협잡도 일상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범죄는 상업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이 아닐 수 없다.

3) 店鋪상업의 발달

18세기 서울에는 시전이나 사상들의 난전상업외에도 점포

31) 『各廳記事』地, 乾隆 11년(1781) 4월 일

32) 이우성·임형택 편, 『李朝漢文短篇集 하』李泓傳(일조각, 1978)

상업도 발달하고 있었다. 19세기 초에 작성된 『東國輿地備考』에는 市廛과 다른 점포상업을 특별히 舖肆로 독립시켜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懸房, 藥局, 書畫肆, 冊肆, 金橋貫家가 기록되어 있다.

懸房은 소를 잡아 고기를 판매하는 곳으로, 泮人들인 성균관 典僕들이 판매를 주관하였다. 고기를 매달아 판매하기 때문에 현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중부에는 하량교, 履塵, 승내동, 향교동, 수표교등 5곳, 동부에는 광례교, 二橋, 왕십리등 3곳, 서부에는 태평관, 소의문밖, 정릉동근처 병문, 冶鑄峴, 육조앞, 마포등 7곳, 남부는 광통교, 저동, 회현동, 의금부등 4곳, 북부는 의정부, 수진방, 안국방등 3곳이 있었고, 여기에 성균관에 소재한 현방을 합하여 총 23곳에서 푸줏간 영업을 하고 있었다.³³⁾

약국은 주로 현재 을지로 입구인 구리개(銅峴)근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³⁴⁾ 약국은 병자에게 약을 지어주는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시정인들의 약속의 장소, 만남의 장소로서도 기능하였다.³⁵⁾ 그러므로 약국은 市井의 소문들이 발생하는 근원지이면서, 그러한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조선후기에 발생하는 정치적 변란사건의 대부분에는 주모자들의 모의장소나 만남의 장소로서 약국이 활용되는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었다.³⁶⁾ 약국과 비슷한 기능을 했던 점포가 煙肆(담배가게)였다. 담배가게에서 講讀師들

33) 『東國輿地備考』 권2 漢城府 舖肆

34) 위와 같음.

35)李文奎, 『조선후기 서울 市井人의 생활상과 새로운 지향의식』 (『서울학연구』 5, 1995)

36) 『영조실록』 권 76 영조 28년 4월 기유, 『정조실록』 6권 2년 7월 을사 참조.

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소설을 읽어주는 장소로도 제공되고 있었다.³⁷⁾

그림판매점인 書畫肆는 대광통교 서남쪽 개천변에서 각종의 그림과 글씨를 판매하였으며,³⁸⁾ 책을 판매하는 冊肆는 정릉동 병문, 육조앞 등지에 있었는데, 주로 四書三經과 百家諸書를 판매하였다.³⁹⁾ 이 시기에는 직업적으로 책만을 판매하는 책장수도 등장하였고, 그중의 일부는 조선후기 한문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⁴⁰⁾ 여러 곳에 산재한 金橋貫家에서는 종친 및 공주나 옹주의 舊第를 혼인을 앞둔 신부집에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다.

4) 遊興業과 상업적 예능인집단의 출현

도시상업의 발달로 조선후기 서울에는 유흥업의 성격을 갖는 주점, 음식점, 기방, 색주가 등도 번창하였다. 남대문에서 종로에 이르는 거리에는 주점, 팔죽집 등 음식점이 즐비하였으며, 서울 종루거리에는 천냥짜리 靑樓가 등장할 정도로 색주가가 번창하였다.⁴¹⁾ 서울지역에서 대표적인 색주가는 경강의 마포지역과 남대문밖, 탑골공원 뒷편 등지였다. 서울의 주점 중에서도 '군칠'이라는 주점은 평양의 냉면, 개성의 산적따

37) 김기동·이종은 편, 『韓國漢文小說選』 銀愛傳 (교학연구사, 1984)

38) 참고로 1844년에 쓰여진 『한양가』에 묘사된 그림판매점의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

광통교 아래가게 각색그림 걸렸구나/ 보기좋은 병풍차에 백자도 요지연
과 곱분양 행락도며/ 강남 금릉 경직도며/ 한가한 소상팔경 산수도 기
이하다(하략)

39) 『東國輿地備考』 권2 漢城府 舖肆

40) 이우성·임형택 편, 『李朝漢文短篇集 中』 鬻書賣生 (일조각, 1978)

41) 이우성·임형택 편, 『李朝漢文短篇集 上』 美僧 (일조각, 1978)

위를 팔았고, 밤에는 불을 켜놓고 영업을 하였다고 한다. 평양과 개성의 특미가 서울 주점의 메뉴로 등장할 정도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번창했던 주점에서는 수십가지 안주를 제공하였고, 젊은이들은 술값으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와 더불어 쇠고기와 어물의 절반 이상이 주점의 안주로 소비되어 서울 시민의 찬거리값이 폭등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주점과 음식점의 발달, 즉 상업적 외식업의 발달은 인구의 밀집과 유동을 전제로 한 조선후기 도시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였다.⁴²⁾

원래 기녀가 제공하는 각종 춤과 기악, 성악 및 성적 서비스는 궁정과 관료를 위한 것이었으나, 18세기 경에는 상인과 閭巷人이 새로운 수요 소비층으로 등장하면서 市井에 妓房이 출현하였다. 기방은 기녀의 예능, 술, 성을 판매하는 곳이자, 도시민의 사교장이며 도박장이기도 했다. 일종의 복합적인 유흥공간이었던 셈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행락문화와 놀이문화도 번성하였다. 이러한 행락문화의 성행은 곧 유흥의 상업화경향을 촉진하였다. 서울 市井의 향락 소비생활의 발전이 제 나름의 기여를 파는 일을 업으로 하는 예능인들이 출현시켰던 것이다. 특히 산대놀이나 판소리등이 발달하였다. 산대놀이는 원래 왕실과 관에서 주관하는 것이었으나, 18세기에 와서 왕실과 관은 공식적으로 손을 떼었다. 이로 인해 산대놀이는 위축된 것이 아니라 시정으로 활발히 진출하여 서울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관람오락으로 발전하였다.⁴³⁾ 산대놀이는 송파와 양주지역에서도 번

42) 강명관, 『조선후기 서울과 漢詩의 변화』 (『문학작품에 나타난 서울의 형상』, 1994)

43) 이상 18세기 서울에서의 유흥발달에 대해서는 강명관, 『조선후기 서울

창했는데, 이들 지역은 서울 외곽의 새로운 상업거점으로 발달한 곳이었다. 이 지역 산대놀이의 후원자들은 대부분 광주의 송파장과 양주 누원점의 富商大賈들이었다. 놀이패들은場이 서기전에 놀이를 벌임으로써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기능을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유흥의 상업화현상은 곧 상품화폐경제의 원리가 예술부문에 적용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講談師, 講唱師, 講讀師 등의 이야기꾼들의 활동도 전문적인 예능으로 발달하였다. 강창사는 판소리 광대를, 강독사는 길거리에서 청중을 상대로 이야기책을 낭송하던 傳奇叟 같은 부류를, 강담사는 담화조로 하는 이야기꾼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傳奇叟의 경우가 있다.

傳奇叟는 동대문 밖에 살고 있다. 언문소설책을 잘 읽는데 이를테면,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薛仁貴傳』 같은 것이다. 읽는 장소를 매달 초하루는 제일교 아래, 초이틀은 제이교 아래, 그리고 초사흘은 배오개에, 초나흘은 교동입구, 초닷새는 대사동 입구, 그리고 초엿새는 종각 앞에 앉는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초이레부터는 다시 내려온다. (중략) 워낙 재미있게 읽는 까닭에 청중들은 겹겹이 담을 쌓는다. 그는 읽다가 가장 간절하여 매우 들을 만한 대목에 이르러는 문득 읽기를 멈춘다. 청중은 하회가 궁금해서 다투어 돈을 던진다. 이것을 일컬어 邀錢法이라고 한다.⁴⁴⁾

이러한 市井에서의 상설적 공연형태의 출현은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가로의 형성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인구의 증가와 도시민의 경제력이 관람오락을 발전시킨 동력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서울의 상업도시화는 연예를 생계로 삼아 활동하는 상업적 연예인집단을 출현시킨 것이다.⁴⁵⁾

의 중간계층과 유흥의 발달』(『민족문학사연구』 2, 1992) 참조
44) 趙秀三, 『秋齋紀異』 傳叟

4. 商業的 農業과 民營手工業

1) 商業的 農業과 ‘穢德先生’

17세기 후반이후 급속히 상업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서울에서는 상업적 농업도 크게 성행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채소, 과수농업과 약초재배업이었다. 채소농업은 동대문밖과 서대문밖의 미나리밭, 독립문 주변의 무, 배추, 왕십리의 무우, 살곶이다리의 순무, 石橋의 가지, 오이, 수박, 연희궁주변의 고추, 부추, 해채, 청과지역의 미나리, 이태원의 토란등이 가장 유명했다.⁴⁶⁾ 이외에도 마늘, 파, 부추, 호박, 수박, 연초 등도 교외지역에 재배되고 있었다.⁴⁷⁾ 이와 같은 채소농업은 미곡농사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19세기 초 禹夏永에 의하면 “미나리 2마지기를 심으면 벼 10마지기 심어서 얻는 이익을 올릴 수 있고, 채소 2마지기를 심으면 보리 10마지기를 심어 수확하는 것과 같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⁴⁸⁾ 또한 丁若鏞도 “서울안팎의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에서는 上之上畝의 벼농사에 비해 10배 이상의 이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⁴⁹⁾

이와 같이 상업적 농업의 이익이 커지자, 18세기 이후에는 도성내외의 채소밭도 크게 증가하고, 그 규모도 확대되었다. 1725년(영조 1) 살곶이벌에 있었던 司僕寺 屯田도 채소밭으

45) 임형택, 『18·9세기 '이야기꾼'과 소설의 발달』(『고전문학을 찾아서』, 1975)

46) 李春寧, 『서울의 農業地帶小考』(『鄉土서울』, 1989), 21면

47) 『漢京識略』各洞

48) 禹夏永, 『觀水漫錄』輕稅勸農之策

49) 丁若鏞, 『經濟遺表』地官修制 田制十一 井田議 三

로 변했으며, 50) 御營廳 관할의 동대문 밖 채소밭도 생겨났다. 51) 그 중에서도 司圃署 관할의 채소밭은 30여결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였다. 52) 또한 이 시기에는 도성안 龍興舊宮자리가 채소밭으로 바뀌었는데, 이 밭의 주인들은 양반들이었다. 53) 관청외에 일반 사대부들도 상업적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紅花, 紫草와 같은 약초도 상업적으로 재배되었다. 충정로에서 만리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주변에는 약초재배가 성행했기 때문에 약고개라 불렸으며, 독립문주변에는 홍화가 재배되어 이 일대를 홍화동으로 불렀다. 또한 상업적으로 과일나무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층들도 생겨났다. 인왕산 기슭 누각동이나 이화동에는 살구나무, 교북동에는 살구, 복숭아, 감나무, 창신동에는 복숭아, 앵두나무, 세검정에는 자두나무가 많았고, 동숭동에는 잣나무가 많아서 잣골이라는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54) 이외에도 18세기에는 각종 화초나 분재를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전문적으로 길러 판매하는 자들도 생겨났다. 55) 이처럼 18세기 상업적 농업은 채소류나 약초류에 그치지않고 과일과 꽃재배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이 시기 상업적 농업에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 박지원의 소설에 등장하는 穢德先生이었다.

50) 『비변사등록』 77책 영조 원년 3월 9일

51) 『비변사등록』 138책 영조 36년 5월 16일 『瀋川司節目』

52) 『비변사등록』 168책 정조 10년 정월 5일

53) 『비변사등록』 138책 영조 36년 4월 1일

54) 崔完基, 『朝鮮時代 서울의 經濟生活』 (서울학연구소, 1995), 33면

55) 姜彝天, 『漢陽詞』城北城南業賣花

예덕선생은 宗本塔 동편에 살면서 매일 마을의 똥을 지나르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불러 嚴行首라고 불렀다.(중략) 왕십리에서 무우, 살곶이다리에서 순무, 석교에서 가지, 오이, 수박, 연희궁에서 고추, 부추, 해채, 청파에서 미나리, 이태원에서 토란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밭은 上上田에 심고 모두 엄씨의 똥을 써서 가꾸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嚴행수는 매년 육천전을 벌기에 이른다.⁵⁶⁾

예덕선생은 서울도성안의 민가의 똥을 수거하여 근교의 채소등 상업적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업으로 삼던 인물이었다. 朴趾源은 이러한 천한 인물을 '선생'이라고 존칭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당시의 풍조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2) 民營手工業과 匠人·匠房

서울은 국내 최대의 소비도시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 국가에서 필요한 주요 수공업제품을 조달하는 생산도시이기도 하였다. 15세기 후반 『經國大典』에 등록된 서울의 관영수공업장은 총 30여개소였다. 이에 소속된 장인들수도 2,800여명이었고, 이들은 30개 수공업공장에서 129종의 일을 맡고 있었다. 종이나 그릇등 넓은 작업공간이 필요한 분야는 도성밖에서 제조되었지만, 음식이나 의복, 장신구, 기구등은 대부분 궁궐이나 도성안 종로근처에서 제조되었다.⁵⁷⁾

이와 같은 관영수공업체제는 무기화약류나 도자기의 제조분야를 제외하고는 17세기이후 점차 동요되어 해체되기에 이른다.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大典通編』에 의하면 30여개

56) 이우성·임형택 편, 『李朝漢文短篇集 하』 穢德先生傳 (일조각, 1978)

57) 崔完基, 『朝鮮時代 서울의 經濟生活』 (서울학연구소, 1995), 49면

의 관영수공업 가운데서 사섬시, 전함사, 소격서, 사온서, 귀후서 등이 관아 자체가 없어지고, 또 내자시, 사도시, 예빈시, 제용감, 전설사, 장원서, 도화서, 사포서, 양현고 등 10개 관아에 속해있던 작업장에는 장인들은 한명도 없었고, 그 밖의 작업장에서도 명목은 있었으나 실제 장인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大典通編』이 간행된 18세기말 시점이 아니라 『續大典』이 간행된 1744년경에 이미 현실화된 사실이었다고 『大典通編』에는 특기하고 있다.⁵⁸⁾

관영수공업이 해체된 이후, 수공업자들은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생산하였다. 민영수공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민영수공업은 대동법 실시이후 크게 발전하였다. 서울의 민영수공업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東國輿地備考』의 匠人條에서는 서울의 수공업자로 金匠, 銀匠, 玉匠, 豆錫匠, 木手, 石手, 小木匠, 大丁, 造主匠, 棺槨匠, 毛衣匠, 鞍粧匠, 鑄字匠, 熟手, 刻手匠, 粧冊匠, 漆匠 등을 꼽고 있으며, 그들의 작업장인 匠房으로 金房, 銀房, 玉房, 豆錫房, 綾羅房, 周皮房, 弓房, 矢房, 紗帽房, 角帶房, 刀子房, 眼鏡房, 石鏡房, 毛衣房, 筆房, 笠房, 烟竹房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수공업장의 위치는 대부분 종로주변에 위치하였다. 예컨대 銀房의 都家는 백목전도가의 남쪽과 내어물전 북쪽의 향도정동 두 곳에 있었으며, 豆錫房의 도가는 月乃塵 남쪽에 위치하였다.⁵⁹⁾ 여기서 보듯이 서울의 민영수공업자들은 독립적인 작업장을 소유한 채 제품을 생산했다. 또한 銀房이 은을 판매하는 백목전도가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로 보건대 수공업자들과 상인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8) 『大典通編』 工典, 京工匠

59) 『東國輿地備考』 권2 漢城府 匠房, 匠人

한편 관영수공업장에 소속된 장인들도 이 시기에는 민간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공조 소속의 耳掩匠은 耳掩塵을, 공조 소속의 冶匠은 雜鐵塵을 직접 운영하였다. 또한 瓦署에서도 私匠들이 기와를 구워 민간에 판매하였고, 造紙署의 紙匠들도 국가에 납품하는 것 말고도 소비자에 판매하기 위해 종이를 생산하였다. 이외에 공조의 毛衣匠, 상의원의 柳匠이나 刀子匠등도 합법적으로 수공업생산품을 생산하여 사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공조의 水鐵匠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釜鼎의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였다.⁶⁰⁾

5. 京江邊 각종 영업의 발달

1) 荷役運輸業과 馬契·運負契

서울을 끼고 도는 한강지역, 즉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의 한강지역을 경강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전국적 해운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18세기이후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특히 선박의 집중으로 물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몰려든 빈잔민들이 여러 영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인구도 급증했다.⁶¹⁾

60) 宋贊植, 『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研究』 서울대 출판부 44-45면, 1973.

61) 경강변 인구는 1789년 『戶口總數』의 기록에 의하면 3만 5천여명이었다. 이는 전체 서울주민 20만명중의 17.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이 주로 외부에서 이주한 자들이 집단 거주한 지역으로 無籍之類가 많았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공식 인구통계에 비해 경강변 실제 거주인구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경강중에서도 용산에는 군량을 보관했던 군사감과 삼남대동창, 그리고 다른 아문들의 창고도 많이 설치된 곳이었다.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은 창고까지 조세곡을 하역운반하거나 다른 물자의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물자의 運輸役은 원래 서울 五部坊民의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여 수행하는 坊役이었으나, 17세기 초 京江民에게만 부과되는 役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력 직접 징발체제는 17세기 후반을 계기로 物納稅로 변화되었고, 18세기초 정부에서는 이 운수역을 馬契·運負契등의 貢人契를 창설하여 담당토록 하였다.

운부계는 주로 사람의 등이나 지계를 이용하여 경강에 도착한 조운선에서 세곡을 부려 각 아문의 창고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하였고, 마계는 정부의 공용물자를 말을 이용하여 馱運하였다. 운부계의 雇價는 풍족하여 운부계인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반면, 마계는 정부의 雇價와 경강민들로부터 걷는 물납세를 합해도 경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에서는 운부계와 마계를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운부계인이 마계를 흡수한 셈이었다.

마계의 운영권까지 장악한 운부계인들은 경강변의 각종 화물의 하역, 운부역을 독점하였다. 운부계인들은 자신들이 貢人이라는 점을 근거로 경강변 빈민들의 일반 화물의 하역, 운송업까지 독점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龍山 運負契의 運負都賈가 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산의 運負都賈에 반대하여 용산 이외의 마포나 서강, 망원·합정등 다른 지역 주민들이 여러차례 국왕에게 격쟁과 상언을 올렸다. 운부도고를 둘러싼 분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된 것이다. 결국 도고영업은

혁파되었고, 용산이외의 지역에서도 하역운수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하역운수업의 자유경쟁체제도 19세기 이후에는 붕괴되어, 경강의 富豪와 都城內의 有力者들에 의해 모두 독점되기에 이른다.⁶²⁾

2) 民間藏氷業과 藏氷都庫

원래 겨울에 얼음을 저장하고 여름에 나누어주는 일은 氷庫에서 담당하는 일이었다. 정부에 소속된 빙고는 東氷庫, 西氷庫와 궁궐안의 內氷庫 2곳등 네곳이 있었다. 각 빙고에서는 한강에서 얼음을 채빙하여 얼음을 저장하는 일을 京江民에게 부역으로 부과하였다. 이를 藏氷役이라고 했는데, 이 장빙역도 17세기 후반이후 점차 물납세로 전환되었고, 18세기 후반에는 하역운수역과 마찬가지로 貢人契인 氷契가 창설되어 경강민들을 給價雇立하여 얼음을 저장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얼음은 한강변 저자도근처에서 음력 12월이나 1월중 오전 2시경에서 해뜨기 전에, 길이 1尺五寸, 幅 1尺, 두께 5-7寸 정도로 잘라서 한 장씩 떼내었고, 이렇게 채취한 얼음을 지게나 수레를 이용하여 빙고까지 운반하였다. 빙고에서는 채취한 얼음을 차례대로 배열하고, 틈마다 얼음조각을 삽입하여 조그마한 틈도 없게 한 다음, 위에 빈 가마니 여러 장을 덮어 외부의 공기가 유통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얼음이 녹는 것을 방지하였다. 얼음을 채취하는 채빙공과 빙고에 저장하는 저장공은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숙련노동자를 고용했지만, 운반에는 품팔이노동자를 고용하였다. 장빙업은 빈민들이 겨울철에도 살아갈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 영업이었던 셈이다.

62) 이상 馬契, 運負契에 대해서는 拙稿, 앞의 박사학위논문 참조., 1993

이와 같은 官營水庫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장빙업은 원래 여름철에 왕실과 고위 관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민간에게 얼음을 판매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민간장빙업도 성행했다. 18세기 이후에는 민간인 가정에서도 육류와 어물의 소비가 늘면서, 懸房이나 生鮮廬에서의 얼음수요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냉장선의 일종인 氷魚船이 출현하였기 때문에 民需用얼음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다. 당시 민수용얼음의 수요는 官需用에 비해 네배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했다. 그러므로 民需用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인 私水庫도 18세기 후반에는 30여곳으로 늘었지만, 이곳에서 조달되는 얼음은 여름 한철 얼음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정도였다.

이처럼 얼음수요가 많았으므로 민간장빙업은 많은 이익을 남겼다. 18세기말의 자료에 의하면 한해에 1만냥을 투자하여 최소 2만냥에서 최대 20만냥까지 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하였다.⁶³⁾ 장빙업이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었으므로, 민간장빙업에는 ‘曾經顯職者’ 거나 ‘班戶之慣於牟利者’ 등 상당한 세력을 가진 자들이 참여하였다. 실제 18세기 후반 유력한 장빙업자인 姜慶煥은 양반으로서 姜希孟의 후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빙업을 독점하기 위한 분쟁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⁶⁴⁾

63) 藏氷業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영업이었음은 1908년 農商工部 水産局에서 편찬한 『韓國水産誌』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즉 『韓國水産誌』에는 ‘겨울에 15만장의 얼음을 저장하면 그해 여름 순수익은 2,600圓에 달한다. 당시 한해에 이와 같이 거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영업은 많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64) 이상 藏氷業에 대한 서술은 拙稿, 『조선 후기 藏氷役의 변화와 藏氷業의 발달』(『역사와현실』, 1995) 참조

3) 主人營業과 船運業

18세기 이후 경강지역의 상업세력은 다양했다. 대표적인 상업세력으로는 선상을 접대하고, 상품의 매매를 주선한 댓가로 구문을 받았던 京江旅客主人層, 租稅穀운송을 전담하였던 京江船人層, 우월한 수송능력을 토대로 지역적 가격차를 이용하여 상품유통을 전개했던 京江船商層이 있었다.

경강여객주인들의 최초 영업지는 마포였다. 여객주인들은 외방의 船商에게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주인권을 획득하고 있었다. 船商들은 자금 부족을 메꾸거나 또는 부채를 갚기 위해 자신을 여객주인에게 放賣하였으며, 放賣한 船商(客商) 자신은 물론 그 후손도 주인에게 예속되었다. 이처럼 여객주인권의 발생은 旅客商賈와 주인사이에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성립하였다. 이는 곧 주인권이 경제적 권리로 성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여객주인권은 또한 매매, 상속, 양도가 자유로운 재산권으로, 법적으로도 보호받았다. 만약에 선상들이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품판매를 위탁할 경우, 형조나 한성부에서는 선상들을 '橫叛主人之罪'로 처벌하였다.

이와 같이 성립된 경강에서의 주인-객상관계는 18세기 이후 상품유통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有浦有主 一世之通規'라는 표현처럼 포구에서 여객주인이 없으면 매매에 곤란을 받을 정도였다. 이처럼 여객주인이 상품유통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필수적인 요소로 변하자 여객주인이 소유한 선상에 대한 지배권도 점차 강화되었다. 주인권의 권리내용도 상품거래를 증대하여 구문을 얻는 것에서 상품에 대한 주인층의 독점적 판매권으로 轉化하였다. 이제 선상들은 실고 온 상품을 時勢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주인을 통하여 매매하지 않

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한편 18세기 중엽 여객주인의 존재가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여객주인권도 개별상고와 주인사이에 성립하던 데서 점차 한개 郡縣이나 面 전체의 商賈를 대상으로 주인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변화였다. 한 지역 전체의 선상과 선인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역주인권이 성립한 것이다. 지역주인권의 성립을 계기로 점차 주인권의 성립과정에서도 봉건권력이 개입하게 되었다. 여객주인층들은 권력과의 결탁을 공고히 하면서 선상들이 싼고 온 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기초로 가격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都賈商人으로 성장하였다.⁶⁵⁾

경강의 船運業者들도 17세기 후반 官船漕運體制가 쇠퇴하고 賃運上納制度가 확대되면서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전국 각지의 私卜운송이나 貿穀활동에 참여하다가 세곡운송시기가 되면 경강에 모여 稅穀을 운송하였다. 17세기 大同法의 실시로 조세곡 운송량이 늘면서 경강선운업은 비약적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⁶⁶⁾ 漕船이 아닌 경강선에 의해 운송되는 세곡은 18세기 중엽 대체로 호남이 10만여석, 호서가 6만여석으로 총 16만여석 규모였다. 경강선인의 세곡운송 주도권은 1789년 舟橋司의 설치를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주교사에서는 京江大船 80여척을 소속시켜 추첨으로 운번제에 의해 호남과 호서지역의 直納邑의 세곡을 전담케 하였다. 주교사 설치는 1760년 복구된 嶺南漕運과 더불어 조세곡 운송의 모든 과정을 국가기관에서 관할하는 체제

65) 拙稿, 『포구상업의 발달』(『한국사시민강좌』 9, 1992) 참조

66) 崔完基, 『朝鮮後期 船運史研究』(일조각, 1989) 참조

를 성립시켰다. 즉 嶺南漕運은 선혜청에서, 兩湖지역의 漕運은 戶曹에서, 兩湖지역 直納邑은 舟橋司에서 관할하게 된 것이다.⁶⁷⁾ 경강선인들은 주교사 소속을 계기로 세곡운송에서 받는 船價만이 아니라 각종 戰船, 兵船, 漕船의 退船을 독점적으로 불하받았다. 이들은 退船을 木 30疋로 불하받은 뒤, 약간의 비용을 들여 개조한 뒤에 한척당 700냥에서 800냥을 받고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경강상인들은 축적된 상업자본을 토대로 조선업에까지 진출하였던 것이다.⁶⁸⁾

한편 이들은 선운업자이면서 한편으로 무곡선상의 역할도 하였으므로 세곡운송과정에서 防納을 통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경강선인들은 조세곡을 穀價가 비싼 지역에 가서 판매한 후, 곡가가 싼 경강근처에서 구입하여 상납함으로써 이익을 남겼던 것이다. 경강선상층은 또한 우월한 항해술을 기반으로 전국을 무대로 활약하였다. 그들은 신속한 수송능력과 정보능력을 기초로 지역간 시가의 차이와 최대소비시장인 서울에서의 도고활동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다.

18세기 후반에는 이와 같은 여객주인업, 선운업, 선상업등은 권력가문과 결탁한 상인들에 의해 통합되어 갔다. 이들은 江上大賈라고 불리우는 경강상인으로서 상업자본을 가장 크게 축적할 수 있었던 상인들이었다.

67) 拙稿, 앞의 박사학위논문 참조, 1993

68) 姜萬吉, 『京江商人和 造船都賈』(『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1972) 참조

6. 맺 음 말

이상에서 조선후기 서울주민들의 다양한 생업과 상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함으로써 글을 맺고자 한다.

대동법 실시이후 각종 요역이 雇立化가 진전됨에 따라 외부에서 유입된 유민들도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서 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서울인구가 증가하였고, 인구구성도 달라지게 되었다. 특히 외부에서 이주한 유민들이 도성밖에 정주하면서 서울은 도시공간이 확대되면서, 생업이 매우 다양화되었다.

가장 견실한 상업기반을 가졌던 시전상인과 공인들외에도 행상과 군인들, 품팔이노동자와 수공업자, 소매치기나 도둑, 거지등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서울 도시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도시빈민의 형성은 이 시기 서울이 지닌 특징적인 모습의 하나인 것이다.

한편 서울의 상가도 종로와 이현·칠패의 3大市로 확대되었고, 종로시전거리에는 呼客행위로 생계를 삼는 여리꾼이, 난전이 펼쳐진 이현, 칠패시장에서는 위조품을 사고파는 사기꾼과 소매치기들이 활개를 쳤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에는 도심 곳곳에 약국이나 푸줏간, 책방, 그림가게 등 점포상업도 활성화되고 있었다. 특히 약국이나 담배가게는 당시 사람들이 휴식처의 구실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상업도시로 전환되면서 서울에는 유흥업도 성행하였다. 주점과 음식점, 색주가등이 번창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진전되면서 서울 가로에서는 예능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전문예능인집단도 출현하였다.

조선후기 서울에는 도성안팎에 채소, 약초, 과일 등을 재배하는 상업적 농업도 성행했다. 이러한 채소밭에 민가의 인분을 제공하는 예덕선생은 일년에 6천푼을 벌 정도였고, 연암 박지원은 이 사람을 선생이라고 존칭함으로써 당시 경제적 이익을 좇는 실용적 풍토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서울은 또한 수공업생산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 조선후기에는 관영수공업체제가 붕괴되고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각종 匠人들이 자신의 독자적인 匠房에서 민간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수공업제품을 제조하고 있었다. 이들 제품은 주로 시전상인과 밀접한 관련하에 팔리고 있었다.

한편 조선후기 서울의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또 다른 지역은 경강지역이었다. 경강지역은 전국적 교통운수의 중심지로서 급속하게 상업중심지로 전환되어갔다. 이곳에서는 유력한 양반들의 자본과 경강변 빈민들의 노동력이 결합하여 영위되는 하역운수업과 장빙업이 성행하였는데, 장빙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은 당시 다른 영업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막대했다. 또한 경강에서는 여객주인업과 선운업, 그리고 선상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江上大賈들이 출현했는데, 이들은 궁방이나 권세가와 결탁하여 조선후기 최대의 상업자본가로 성장한 세력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서울주민들의 생업은 매우 다양했고, 그들의 경제활동은 매우 역동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역동성은 서울의 도시문화를 변하게 했다. 즉 종래 성리학적 지배이념 중심의 王都文化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상업도시문화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서울문화의 변화과정에서 '서울각쟁이'라는 표현도 생겨났던 것으로 이해된다.